「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2호(2017 여름): 103-128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1 No.2 (2017 Summer)
http://dx.doi.org/10.20484/klog.21.2.5

시니어 코하우징 입주 노인들의 사회 자본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김제시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중심으로*

양 은 진**
김 순 은***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의도적인 사회 자본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기관 중심적 접근방식의 관점에서 전북 김제시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의 사회 자본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크게 노인들의 사회 자본 형성과정,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 경험, 형성된 사회 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분석결과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 경험은 '관계'에 관한 의미가 많이 도출되었다. 입주 노인들 사이의 초기의 사회적 관계와 시니어 코하우징 내에서의 상호작용 특히, 대화는 입주 노인들이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형성된 사회 자본은 노인들의 삶의 질과 코하우징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 자본은 그들이 공유하는 다양한 경험과 함께 하나의 촉진제로 작용함으로써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확대된 사회 자본은 노인들의 삶의 질과 노년기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결론에 제시하였다.

주제어: 시니어 코하우징, 사회자본, 고령사회, 노인, 노인주거복지, 한울타리 행복의 집

Ⅰ. 서 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년층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대되었다. 가족기능의 약화로 과거 가족복지에 해당했던 영역들이 사회가 책임져야하는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복지 정책은 부족한 현실이다. 최근,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인들의 심리적인 측면까지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3A2925399)
본 연구는 양은진(2017)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 교신저자

고려한 노인주거 모델이 지방정부의 주도로 공급되고 있다. 김제시의 경우 기존의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2006년부터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시 금천구는 2014년부터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을 리모델링한 '보린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한울타리 행복의 집'과 '보린주택'은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된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형태의 주거 모델이다. 시니어 코하우징은 개인공간과 공동체 공간이 공존하는 반 공동체적 주거모델로서 사생활 보호와 더불어 친구, 이웃들과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사회의 대안적 주거모델로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니어 코하우징인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 경험을 통해 그들의 상호 작용의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 자본이 형성되는 모습을 파악하며, 형성된 사회 자본이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사례는 지방정부가 시니어 코하우징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와 고독사,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의 과정을 반영한 정책이다. 특히,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김제시 내 많은 지역에 걸쳐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시니어 코하우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드러내주는 동시에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명확히 제시해 줄 수 있다. 만약, 김제시의 의도대로 노인주거복지 모델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의 상호작용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발적 규범을 촉진하고 호혜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상호 돌봄이 실천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상호 돌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실제 시니어 코하우징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김제시가 농촌 노인들의 고독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하는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의 경험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과정의 분석을 통해 입주 노인들 간의 사회 자본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끝으로 형성된 사회 자본이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수립 및 보완을 시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 마련에 실마리를 제시해줄 수 있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와 차별성을 가진다. 분석결과와 함의를 토대로 향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Ⅱ. 이론적 논의

1. 코하우징과 노인주거복지

시점은 다르지만 덴마크, 스웨덴,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노인들이 자신의 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성원의 개별적인 주거공간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며, 공동의 공간을 통해 이웃과의 교류빈도를 증가시키고, 공동 활동의 참여를 통해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에 보다 협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거 모델인 코하우징은 고령사회의 효과적인 주거모델 대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최근에는 지역 사회자본과 노인문제에 관한 연구에서도 지역 사회자본의 단절을 회복시키기 위한 소외된 노인 간의 공동체를 형성시켜주는 대안으로 코하우징을 제시하고 있다(어유경·김순은, 2016). 코하우징과 노인의 주거복지, 공동체 형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공동체를 공동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보기도 하고(Bookman, 2008), 노년층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돌봄과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지역사회라고 보기도 한다(Greenfield et al., 2012). 공동체를 공동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북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모델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며(Jolanki & Vilkko, 2015), 공동체를 고령친화적인 사회적·환경적 분위기가 형성된 지역사회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주도로 지역사회 서비스를 구축하는 미국의 빌리지(Villages)모델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Bookman, 2008).

〈표 1〉 코하우징에 관한 선행 연구

연구유형	연구자	주요내용
해외 시니어 코하우징 관련 연구	Williams (2005)	코하우징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비공식적인 사회적 상호 작용의 분석을 통해 사회적 상호 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요인들에 대해 탐색
	Glass (2013)	시니어 코하우징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코하우징 공동체 구축 과정과 혜택, 과제 조사를 통해 코하우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Jolanki & Vilkko (2015)	핀란드의 시니어 코하우징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에 관한 조사를 통해 노인들의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대안적 모델로 코하우징 제시
	Labit (2015)	고령화 현상과 관련해서 코하우징이 어떻게 형성되며, 거주민들의 공동생활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코하우징이 제도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중간적인 주거 모델임을 제시
농촌지역 그룹 홈과 공동거주 생활 관련 연구	정인수 외2 (2012)	전북 김제시의 독거노인 생활공동체가 가족적 대안으로서 수용될 수 있는지,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파악
	박중신 외2 (2014)	공동생활 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각 지자체별 공동생활 홈 운영 실태에 대한 사례조사와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공동생활 홈의 조성방향을 제시
	이창우 (2015)	농촌의 공동생활주택 거주자와 일반주택 거주자 간의 주거만족도 비교를 통해 농촌 지역의 공동생활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
시니어 코하우징의 물리적인 계획에 관한 연구	정우석·조한 (2007)	노인주거시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인용 코하우징을 제시하고 노인의 생리적·신체적·사회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단위평면 계획을 제시
	조원석·김흥기 (2011)	농어촌지역 독서노인을 대상으로 공동거주에 대한 선호 경향 분석을 통해 농어촌지역에 적합한 공동주거 모델의 모색과 관련된 연구에 기초 자료 제공
	이재향·조벽호 (2012)	노인의 욕구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도시형 코하우징 내 세대 간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시
노년층의 공동거주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	유은주 외2 (2013)	농촌 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험을 통해 공동생활 가정의 돌봄 자원 가능성과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
	이진숙 (2015)	노인복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생활이 가족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파악
	김유진 (2016b)	김제 지역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의 사례를 통해 농촌지역 독거노인 공동생활거주의 실체를 탐색하고 방향성에 대해 제시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모습의 코하우징 주거모델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칭하는 명칭 또한 개념적인 정의를 사용하여 생활공동체, 그룹홈, 주거공동체, 공동체주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하우징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코하우징이라는 용어에 한정하기 보다는 생활공동체, 그룹홈, 주거공동체, 공동체주거 등 보다 넓은 개념적 범위를 적용하고 코하우징 주거 모델의 대상은 노년층으로 한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시니어 코하우징에 관한 해외 연구는 북유럽 국가와 미국을 중심으로 사례 연구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주제는 코하우징 거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코하우징 공동체 구축과정, 코하우징 거주민들이 의미하는 공동체 의식 등 다양하다. 또한 시니어 코하우징에 관한 국내 연구는 대부분 물리적인 환경에 관한 탐색적 연구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고령자들을 위한 기반시설이 취약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논의가 많았다. 농촌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 홈과 공동거주 생활에 관한 연구는 공동거주 생활이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면서 공동거주 생활을 하는 주거공동체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인 주거모델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코하우징의 물리적인 계획에 관한 연구는 시니어 코하우징에 대한 인식 및 선호를 바탕으로 고령친화적인 코하우징 계획과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니어 코하우징이 대안적 주거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코하우징이 지속가능한 주거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실제 입주해서 생활하는 노인의 삶에 대한 내용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최근에는 노년층의 공동거주 생활과 경험에 관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는데 가족대안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이진숙, 2010, 2015), 입주 노인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유은주 외2, 2013), 공동거주 생활의 실체와 '지역 공동체에서 나이 들기(Aging in Community)'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김유진, 2016a. 2016b)가 있다.

코하우징에 관한 국내 연구는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어의 사용으로 체계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특히, 시니어 코하우징에 관한 연구는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의 수도 현저히 부족한 현실이다.

2. 노인의 사회 자본과 코하우징

노년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의 기회와 사회적 접촉을 통해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석재은·장은진, 2016). 이러한 기회의 감소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증가시키고 신체적, 심리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적인 교류가 적은 농어촌 거주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교류가 많은 도시 거주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며(손용진, 2010), 가족·친구·이웃들과 자주 연락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활용하는 노인에 비해 그렇지 못한 노인의 주관적인 건강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어유경 외3, 2017). 때문에 노년기의 사회 자본의 감소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노인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

들이 다양한 상호 작용과 사회적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노인들이 갖고 있던 사회 자본이 감소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코하우징은 주민들의 사회적인 접촉과 교류가 활발해지도록 구성되므로 노인들은 코하우징을 통해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박미선, 2001). 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들이 가족 또는 이웃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외로움이나 고독감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이진숙,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시니어 코하우징은 노인들이 사회적인 접촉을 통해 주변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이웃들과 공동체와 함께 건강하게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나이 들어감을 강조한 주거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Bookman, 2008; Thomas & Blanchard, 2009; 김유진, 2016a).

사회 자본은 행위자 간의 면대면 상호 작용을 통해 초기의 신뢰가 형성되고 다양한 공동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상호 작용 과정을 거친다면 장기적이고 공동체적인 문제를 조율해 나가는 가치와 규범을 함양하고 내재화될 수 있다(이재열, 2006). 행위자들 간의 상호 작용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축적된 사회 자본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정보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해줌으로써 구성원들 개인 사이의 상호접촉이 활발해지도록 유도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사회 자본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행위를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구성원들이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유도할 수 있다(하민철, 2011). 이러한 사회 자본의 역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 자본이 잘 형성될 수만 있다면 코하우징은 노인들이 겪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하우징 내에서 발생하는 입주민들 간의 갈등 또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 폴리(Poley)는 사회 자본과 코하우징에 관한 연구에서 코하우징은 사회 자본의 형성을 위한 기회의 장(場)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와 사회 자본을 의도적으로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 사례 중 하나이고, 코하우징 거주민들은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Poley, 2007). 또한 프리스크(Frisk)의 연구에서는 코하우징 거주민들이 일반적인 주거의 모습을 보이는 응답자들보다 이웃과 훨씬 더 자주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risk, 2007), 코하우징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에서 마클(Markle)은 코하우징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모델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시스템이 사회 자본과 매크로 시스템인 사회적 지지가 갖춰져야 한다고 보았다(Markle, 2013).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았을 때, 사회 자본은 시니어 코하우징이 지속가능한 노인주거 모델로 자리잡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3. 사회 자본 형성과정

특정 주체에 의한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사회 자본의 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동 공간 활성화에 따른 코하우징과 아파트의 사회 자본에 관한 연구에서 공동생활로 발생하는 원만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사회 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

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시하는 것처럼(조문정, 2014) 사회 자본이 사회 구조화 과정에서 형성될 때에는(소진광, 2004) 행위자들 간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갈등 해결을 위한 학습을 제공해주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정 주체의 노력으로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사회 자본은 형성 가능하며, 특정 주체로 인해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행위자들이 의사소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활발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사회 자본은 좀 더 원활하게 형성되고 축적될 수 있다(Leyden, 2003; 정보통신연구원, 2008).

결국 사회 자본은 소유의 관점이 아닌 행위자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소진광, 2004). 사회 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으로(Lin, 2001), 행위자들의 관계에 기초해서 발생되며(Adler & Kwon, 2000) 구조적으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사회 자본 형성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박희봉, 2009). 그러나 사회 자본의 형성에 관한 논의는 주로 이미 형성된 사회 자본에 대해서 살펴보거나 사회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의 사회적 관계나 집단 간 관계의 경로를 추적하여 사회 자본의 형성 여부를 살펴보는데 치중되어 있었으며, 사회 자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때문에 사회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상호 관계를 맺는 행위를 통해 어떻게 공동체의 자원을 활용하고, 그것이 사회 자본의 축적과 증진으로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 자본의 형성과정에 대한 접근방식은 크게 사회 자본이 장기간의 역사적, 문화적 경험들을 통해 축적된다는 사회 중심적 접근방식과 특정 주체, 특히 정부가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 주체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기관 중심적 접근방식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하민철, 2011). 사회 중심적 접근방식은 사회 자본은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으며,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기관 중심적 접근방식은 사회 자본은 단기간에 충분히 형성될 수 있으며,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과 제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라면 그 정책과 제도는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본다(Stolle & Rothetein, 1998). 김제시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코하우징 모델을 도입해 새로운 노인주거복지 환경과 지역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제시청, 2017). 김제시의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사회 구조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은 정부의 도움을 바탕으로 사회 자본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았을 때 시니어 코하우징이 노인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사회 자본 이론을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 주체에 의해 의도적인 사회 자본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본 기관 중심적 접근방식의 관점에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시니어 코하우징인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의 상호 작용에 집중하여 사회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방법

1) 사례연구

본 연구는 집합적 사례연구를 활용해 시니어 코하우징에서 노인들의 사회 자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고 형성된 사회 자본이 노인들의 노년기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집합적 사례연구란 여러 사례를 동시에 연구함으로써 현상이나 일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연구자는 하나의 이슈나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나서 이 이슈를 예증하기 위한 중요한 일치점을 갖고 있는 유사한 사례들을 선택하게 된다(Stake, 1995). 본 연구의 목적은 시니어 코하우징이 노인들의 노년기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입주 노인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있는지, 상호 작용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회 자본 형성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거나 반증하는 방식보다는 사회 자본 형성과정이라는 하나의 틀을 선택해 연구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심도 깊게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사례연구방법(Stake, 1995; Creswell, 2015)이 적합하다.

2) 전북 김제시 한울타리 행복의 집

전북 김제시의 총 인구는 2014년 6월 말 기준 9만 1,890명이며 이 중 2만 3,391명이 노인(25.5%)이고, 그 중 7,917명(노인인구 대비 32.6%)이 독거노인으로서(김제시청, 2017), 그 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김제시 노인들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고 외로움과 우울증, 치매 등 독거노인의 심리적인 문제해소와 더불어 서로 돌봄을 통해 노인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2006년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기존의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독거고령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김제시의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한국형 시니어 코하우징의 형태로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의 본래의 거처와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왕래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2015년 2월 기준으로 1,587명의 노인들이 162개의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 '한울타리 행복의 집' 154개소 입소자 및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운동사 등의 전문 건강관리팀을 구성하여 통합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행중이며, 본 서비스 제공 이후 그룹 홈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방문관리팀의 친절도 94%, 보건교육 92%, 질병예방관리 99%, 기타(건강관리, 건강체조)에서 기대 이상의 높은 만족도와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순은·최지민, 2016).

2. 연구 분석틀

1) 사회 자본 형성 조건

(1) 사회 구조

사회 자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호 작용의 기반이 되는 일정한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다. 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된 초기의 사회적 관계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 자본의 형성을 위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거나 유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구조를 노인들이 시니어 코하우징에 입주하기 이전에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사회 구조로 보고 이러한 초기의 사회적 관계가 시니어 코하우징 입주 이후의 사회 자본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규칙과 공식적 제도

아들러(Adler)와 권(Kwon)이 제시한 사회 자본 형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첫 번째 요인은 기회(opportunity)이다. 기회는 네트워크 이론가들의 영향을 받은 사회학자들이 주로 관심을 두었던 요인으로 이때의 기회는 사회구조 속에서 인위적으로 제공된 초기의 신뢰를 바탕으로 집단 내외부에 존재하는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거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시니어 코하우징은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연령 코호트 공동체이다. 또한 시니어 코하우징은 다양한 공동 활동 프로그램에 노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시니어 코하우징을 사회 자본 형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하나의 공식적인 제도로 보고 코하우징 내에서 노인들이 사회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 구성원 간 상호작용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은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의 교류나 초기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 즉, 사회 자본의 형성을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시니어 코하우징 공동체 내·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동의 활동이라고 보고, 시니어 코하우징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활동의 내용과 입주 노인들이 공동의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입주 노인들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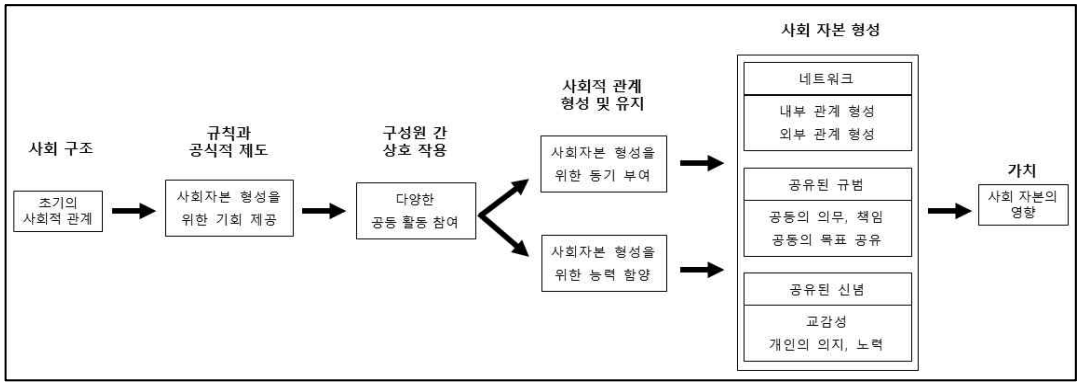
(4)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

마지막으로 견고한 사회 자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가능하다. 또한 공동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상황을 최소화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아들러(Adler)와 권(Kwon)은 사회 자본 형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두 번째 요인으로 동기(motivation)를 제시했다. 동기는 정치학자와 발전경제학자들이 주로 관심을 두었던 요인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를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서 사회 자본 형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마지막 요인으로 능력(ability)을 제시하였는데, 능력은 사회학자들이 주로 관심을 두었던 요인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집단의 자원을 활용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 입주 노인들의 생활 경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사회 자본 형성을 위한 동기 부여와 능력 함양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사회 자본 형성을 위한 동기 부여는 시니어 코하우징 구성원들에 대한 상호간 인식이라고 정의하고, 사회 자본 형성을 위한 능력의 함양은 구성원들의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 적응 능력으로 보도록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코하우징을 입주민들은 상호 작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 자본을 형성하게 되고 형성된 사회 자본은 일정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전제 하에 구성된 연구 분석틀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2) 사회 자본의 형성

일반적으로 사회 자본은 신뢰, 네트워크, 상호호혜의 규범으로 나눠서 측정한다(Putnam, 1995; 박희봉, 2002; 이재열, 2006; 곽현근, 2008; 이희태, 2012). 이러한 신뢰, 네트워크, 상호호혜의 규범과 같은 사회 자본은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박희봉, 2002; 김순은·최지민, 2016),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한 형태의 자원으로 여겨진다(곽현근, 2008; 하민철, 2011). 본 연구에서는 사회 자본을 네트워크, 공유된 규범, 공유된 신념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 자본 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별 조작적 정의 및 내용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네트워크

사회 자본의 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사회 자본이 형성되고 거래되기 위한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네트워크는 사회 자본이 형성되기 위한 시작점으로(김순은·최지민, 2016) 행위자가 일정한 상호 작용을 통해 집단 외부의 상대방과 형성한 새로운 외부 관계는 행위자에게 외부 행위자가 갖고 있는 관계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집단 내부의 행위자들과 형성한 새로운 내부 관계는 행위자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를 내부관계의 형성과 외부관계의 형성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내부관계의 형성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계 형성으로 보고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의 생활 경험을 분석하며, 외부관계의 형성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역사회 소속감 형성으로 보고 이웃 주민들과의 상호 접촉과 교류의 확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시니어 코하우징 입주 노인들 간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2) 공유된 규범

리나(Leana)와 반 버렌(Van Buren)은 "사회 자본의 원천은 집합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의 공동 목표를 정의할 수 있는 개인의 의지와 능력"이라고 보았다(Leana & Van Buren, 1999: 542). 사회 자본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수혜자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거나 더 넓은 범위의 공동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사회 자본을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된 규범을 공동의 목표 공유와 공동의 의무, 책임으로 나눠서 어떠한 공동 목표와 생활 규범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의 목표와 생활 규범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때, 공동의 목표 공유는 상호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생활규범의 형성 여부와 구성원들 간의 상호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살펴보고, 공동의 의무와 책임은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규범의 존재 여부와 공동체에서의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 공유된 신념

린(Lin)은 사회 자본이 행위자들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자원이라면, 사회 자본의 규모는 행위자들에게 사용 가능한 자원에 달려있다고 보았다(Lin, 2001). 이는 사회 자본이 본질적으로 사회 구조 속에서 주어진 자원이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서 행위자들이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생성되는 것이므로 관계를 맺고 있는 행위자들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된 신념을 교감성과 개인의 의지, 노력으로 나누고자 한다. 교감성은 시니어 코하우징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얻게 되는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정의하고, 개인의 의지 및 노력은 공동의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서적 교류라고 정의하여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이 상호 유대적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공동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입주 노인들 간의 공유된 신념과 가치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사회 자본의 가치

사회 자본이 개인이나 사회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회 내의 상호작용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며, 사회 자본을 고갈시킬 수도 있다. 사회 자본의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삶의 질 향상, 집단 문제 해결 능력함양, 구성원의 활동 및 영향력의 범위 확장 등이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외부 행위자에 대한 배제, 개인의 자유 제한, 사회 혼란 발생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자본이 노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코하우징 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2〉 변수별 조작적 정의

단계	변수		조작적 정의
사회구조	초기의 사회적 관계		- 시니어 코하우징 입주 이전의 맺고 있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
규칙과 공식적제도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기회		- 사회구조 속에서 인위적으로 제공된 초기의 신뢰를 바탕으로 집단 내외부에 존재하는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거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
구성원 간 상호작용	다양한 공동 활동 참여		- 시니어 코하우징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활동의 내용과 구성원들이 공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의 여부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동기		- 관계를 맺고 있는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능력		- 사회적 관계를 통해 집단의 자원을 활용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사회자본 형성	네트워크	내부관계 형성	- 공동체 내부 구성원 간의 상호관계 형성
		외부관계 형성	- 공동체 내부 구성원의 지역사회 소속감 형성
	공유된 규범	공동의 목표 공유	- 상호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규범 형성 및 상호 돌봄의 시행 여부
		공동의 의무, 책임	-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을 위한 규범 형성 및 역할분담(조율하는 생활)
	공유된 신념	교감성	-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을 통해 노인들이 얻게 되는 심리적 안정감
		개인의 의지, 노력	- 공동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서적 교류
사회자본의 가치	사회자본 영향	긍정적 영향	-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코하우징 생활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영향	

3. 자료수집

1) 자료수집 방법

질적 연구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보다 현상을 심층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보다는 타당도가 높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신경림 외2, 2004: 110). 전북에 위치한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정보원(gatekeeper)의 협조를 통해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결정적 사례추출

방식(critical case sampling)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고, 김제시 성덕면에 위치한 '한울타리 행복의 집' 3곳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 노인 10명을 거주지에 따라 3 그룹으로 나눠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5월 10일 13:00에 A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 2017년 5월 11일 13:00에 B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 2017년 5월 12일 10:00에 C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서 코하우징 생활 경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과 인터뷰 내용의 녹취과정, 자료의 이용, 비밀유지, 자료의 폐기 등 연구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설명한 후 연구에 대한 참여 동의서 받았다. 인터뷰는 미리 준비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나 정해진 질문에 의존하기 보다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이 본인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 하도록 진행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1명의 주진행자와 2명의 보조진행자가 수행하였으며 보조진행자들은 인터뷰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질문에 맞게 구체화시키고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은 코하우징 생활 경험과 공동활동, 입주민들 간의 상호 관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내용은 〈표 3〉과 같다. 인터뷰는 2개 이상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였으며, 녹취 내용을 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작성한 녹취록과 인터뷰 당시 작성한 필드 노트, 인터뷰 직후 작성한 인터뷰스케치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 3〉 초점집단인터뷰에 사용한 질문 목록

단계	질문내용
사회구조	- 이 마을에는 언제부터 거주하셨나요? - 서로가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셨나요?
규칙과 공식적 제도	- 어떻게 이곳에서 살게 되셨나요? - 몇 분이 함께 살고 계신가요?
구성원 간 상호작용	- 함께 사시는 분들하고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 주로 어떤 것들을 하시면서 보내시나요?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	- 함께 살면 무엇이 가장 좋으세요? - 함께 살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 함께 사시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 자본 형성 및 가치	- 어르신 분들과 함께 살아보니 어떠세요? - 이웃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나요? - 각자 이곳에서 맡은 역할이 계신가요? -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살 계획이 있으신가요?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김제시 성덕면에 있는 A, B, C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으로 총 10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가 여성 노인이었으며, 연령별로는 70대 노인은 6명, 80대 노인은 4명이었다.

〈표 4〉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사항

구분	이름	성별/연령대	거주지	구분	이름	성별/연령대	거주지
1	고 O 림	여/80대	A마을	6	안 O 순	여/70대	B마을
2	박 O 순	여/80대	A마을	7	강 O 모	여/70대	B마을
3	홍 O 기	여/80대	A마을	8	김 O 임	여/70대	B마을
4	김 O 동	여/80대	A마을	9	김 O 자	여/70대	C마을
5	서 O 수	여/70대	A마을	10	조 O 분	여/70대	C마을

4. 연구의 엄격성 및 연구윤리 준수

질적 연구에서는 고지된 동의, 자발적 참여, 연구 참여로 인한 피해, 비밀보장 등의 엄격한 윤리적 이슈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목적을 참여자에게 설명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참여자의 질문에 충분히 대답한 후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연구의 타당성과 엄격성을 유지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니어 주거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지를 수정하고 인터뷰 방식을 교정 받았다.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연구 수행에 앞서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과 인터뷰 내용의 녹취과정, 자료의 이용, 비밀유지, 자료의 폐기 등 연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만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 도중 연구 참여자가 중지 의사를 밝힌 경우 즉시 연구를 중지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개인의 신분, 사생활과 관련한 정보는 사용하지 않았다.

Ⅳ.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의 사회 자본 형성과정 분석 결과

1. 노인들의 사회 자본 형성과정

1) 사회구조 및 규칙과 공식적 제도

사회 자본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와 접촉의 경험에 따라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는 역동적이며 사회적인 실체로서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정보, 사회적 참여, 개인의 의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농촌의 경우 같은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유대관계를 쌓아온 노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기본적인 사회 자본이 구축되어 있었다. 오랜 유대 관계에 기초한 초기의 사회적 관계와 입주 노인들 사이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초

기의 지지적인 사회 자본은 노인들이 또 다른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서 입주 노인들은 주로 자신들의 건강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과 비슷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공동체 구성원에서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시니어 코하우징인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입주 노인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상대방이 곁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줌으로써 노인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친밀감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었다.

또한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입주 노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공동 커뮤니티 공간으로 작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돌봄이 실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마을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들이 자주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찾아와 생활하고 계신 노인들을 챙기고 있었다.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은 낮 시간에는 공동 커뮤니티 공간에 놀러 온 지역주민과 함께 TV를 보거나 화투 치기, 윷놀이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입주 노인뿐만 아니라 마을주민 누구든지 언제든지 모여서 수다를 떨 수 있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함께 잘 수 있는 공간으로서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와 접촉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2) 구성원 간 상호작용

김제시 성덕면 A, B, C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연령 코호트 공동체로 이들이 함께하는 공동 활동은 TV시청, 화투치기, 공동 식사, 대화, 윷놀이와 같은 단순한 활동이 대부분이었으며, 주로 대화와 함께하는 식사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특히,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이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 사이에는 입주 이전에 비해 일정 수준의 사회 자본이 축적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한울타리 행복의 집'마다 그 특징과 정도는 조금씩 달랐다.

다른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던 A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 구성원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서 TV를 시청하는 등 단조로운 일상의 삶을 보내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은 주로 자신들의 건강이나 하루 일과에 관한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TV를 시청하면서 자주 보는 드라마의 내용이나 뉴스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등의 평범한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다. 반면 70대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던 B마을과 C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 구성원들은 TV 시청 이외에도 화투치기, 윷놀이와 같은 활동을 하거나 함께 운동을 나가는 등 좀 더 다양한 공동의 활동을 통해 활발한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있었다.

3) 사회구조적 관계 형성 및 유지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공동체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외부의 지역주민들과도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적 관계 형성의 범위를 넓히고 있었다. 노인들의 지역사회 돌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이징 인 커뮤니티'에서는 노인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주체이자 상호 돌봄이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는 존재로 보며 노인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한다(Bookman, 2008; Thomas & Blanchard, 2009). 이러한 사회적 관계 형성 범위의 확대는 '한울타리 행복의 집'이 입주 노인들의 '에이징 인 커뮤니티'를 실천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작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확장과 더불어서 입주 노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상호 호혜성을 통한 공동생활 규범을 형성하고 있었다. A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의 경우 빨래를 도와주는 젊은이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낮 시간에 물이 담긴 페트병을 베개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C마을의 경우 공동체에서 특별한 음식을 시켜먹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에는 모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해서 음식을 시켜 드시고 계셨다.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공동체 차원의 집단적 노력과 협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한울타리 행복의 집' 노인들은 공동체 생활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적인 분위기를 형성해가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은 초기의 사회 자본을 바탕으로 또 다른 사회 자본을 형성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함께 자고, 놀고, 식사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 있었으며, 지역주민들과도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었다. 특히, 노인들은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긍정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고 있었다. 입주 노인들은 함께하는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공동생활 규범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동체 생활 능력을 함양하고 있었다.

2.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 경험과 사회 자본 형성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 경험과 사회 자본에 관한 내용은 〈표 5〉와 같았으며, 김제시 성덕면의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서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보다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특별하지는 않지만 재미있고 외롭지 않게 노년의 삶을 함께 보내는 과정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표 5〉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 경험과 사회 자본

사회자본	상위범주	하위범주	의미	주요 진술
네트워크	내부관계 형성	상호관계 형성	친근감	이게 서로 인제 친근감이 많으지. 이렇게 앉아서 외로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	서로 얼굴보고 의지하고 응 서로 인제 또 먹을 것도 있으면 갖다 나눠먹고 이래서 이런 재미 참 좋아.
			가족 같은 관계	조금이 아니라 진짜 형제야 이렇게 지낸다는게.. 어디가 안보이면 자꾸 궁금하고 서로 궁금하고 안 뵈면 찾어.
			취미의 공유	앞으로 인쟈 컴퓨터 … 저저 그 어디지 … 아 복지관 거기 이제 댕길라고 거 가서 나랑 여가 가서 좀 배울라고 신청해야혀.
			단순한 동거인	그냥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뭐 그런거지 뭐.
	외부관계 형성	지역사회 소속감 형성	이웃과의 돈독한 관계	딴 데서도 많이 챙겨주고 부녀회장이 챙겨주고 이장이 챙겨주고 그려.
			젊은 세대와의 관계	젊은 것도 와서 화투치고 놀고 밥도 먹고
공유된 규범	공동의 목표 공유	상호 호혜성	서로 챙겨주는 사이	각자 집에서 잠을 자고 이러믄 외롭잖아요. 그러지만 서로께 안아주고 것이 어려운 점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나누면서 기쁜 일 있으면 같이 웃고 그렇죠 뭐.
			타인에 대한 배려	자꾸 비어싸믄 검어쌓잖여. 우리가 비게를 자주 못 빠능게 젊은 사람들이 빨아줘야 하잖아. 긍게 미안한게롱 그러니깐 낮에는 이거 비고 잘 때는 비게 비고…
	공동의 의무, 책임	조율하는 생활	공동체 내 역할 분담	이 짝은 전자레인지 담당..나는 어려워서 못혀. 청소랑 밥은 다 같이 혀.
			함께하는 밥상	여기서 밥 같은 것도 해먹고 누가 갖다 주면 그런 것도 먹고 따숩고 좋재. 여가 좋아.
			적당히 알아서 살아가는 환경	겨울에는 스무 명도 됐다가 열 다섯명도 됐다가 열 명도 됐다가 해. 니꺼 내껏이 없어. 많이 맹글어 놓응게 그냥 다들 눈치껏 알아서 쓰는거지.
공유된 신념	교감성	심리적 안정감	외로움, 고독감 해소	-집에 혼자 있으믄 심심허고 영감 천국가고 없응께 늙은 사람은 심심하고 안좋지. 여기서 살믄 얘기도 하고 좋아. -함께 같이 외로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참 재미있죠.
			안정망의 역할	-우리는 혼자 살면은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살고 있어. 나 어제 밤도 머리가 얼매나 아픈가 나 더 아프면 119 부르려고 했당게. 어떻게 머리가 아픈가 그때 막 얼매나 죽겠던가… 그래서 여서 사는거여. 그래서 좋다 이거여. 느닷없이 아프거나 허면은 혼자 살 때는 좀 그래 다른 사람있으면 … -누가 또 아프면 아프구나 서로 그런 거 알아주고 아프면 누가 아프다고 막 전화도 자식들한테 전화도 막 해주고 좋아요.
	개인의 의지, 노력	정서적 교류	재미난 일상	여기서 인제 고스톱 치는 사람은 인제 고스톱을 치고 인제 안치는 사람은 앉아서 인제 얘기도 하고 테레비도 보고 잠자고자 하는 사람은 잠자고 또 인제 앉아 있는게 싫증나믄 운동 나가는 사람은 운동 나가고 걍 그렇게 생활을 허고 있어 딱 그렇게 생활해.

1) 네트워크

(1) 내부관계의 형성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존재, 형제 같은 사이라고 생

각하고 있었다. 이는 입주 노인들이 서로 깊은 친근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초기의 사회적 관계는 입주 노인들이 긍정적인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진 이후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코하우징 생활을 시작한 어르신의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노인을 단순한 동거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보아 함께 생활하는 구성원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주 노인들은 서로 취미생활을 공유하면서 노년기 생활을 함께 즐기고 있었다. B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는 3명의 어르신 중 2명의 어르신은 김제시에 있는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고자 했는데, 이들은 혼자였으면 생각도 못했을 일이지만 함께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었던 일에 도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처럼 노인들은 함께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면서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2) 외부관계의 형성

시니어 코하우징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노인주거복지 방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시니어 코하우징이 '에이징 인 커뮤니티(aging in community)'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유진, 2016a). '에이징 인 커뮤니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필수 구성원으로 상호지지적인 이웃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Thomas & Blanchard, 2009). 각 마을 이장들은 김제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는 어르신 들이 드실 반찬을 사다 드리거나 관리비를 내고 있었다. 이들은 수시로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었고, 부녀회장이 자주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가사 일을 돕고 있었다. 특히, A마을 이장의 경우 C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 어르신들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서로 간의 왕래가 많았으며, 젊은 마을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C마을의 경우 50대인 지역주민들이 자주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찾아가 함께 화투도 치고 식사도 하고 있었다.

A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의 경우 겨울철에는 마을 근처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담근 김장 김치를 어르신들에게 갖다 주고 있었으며, 타지에서 이사 와서 된장을 만들어 팔고 있는 지역주민이 어르신들 드시라고 된장과 간장을 갖다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으나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는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의 네트워크를 외부로 확대하면서 어르신들이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속감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공유된 규범

(1) 공동의 목표 공유

농촌에서의 시니어 코하우징은 오랜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상호 돌봄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마을의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누워서 TV를 보는 일로 보내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물이 담긴 페트병을 베고 누워서 TV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여쭤보니 낮에도 잠잘 때 사용하는 베개를 사용하게 되면 공간이 비좁아서 더러워 보이고 베개가 빨리 더러워져 가사 일을 도와주는 젊은 사람들이 빨래를 자주해야하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목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낮에는 물이 담긴 페트병을 베개 대신에 사용하고 계셨다. 이처럼 입주 노인들은 함께 생활해가면서 그들만의 생활 규범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규범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었다. 최근 연구에서는 농촌의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 돌봄을 의도했던 농촌지역 공동생활거주의 비공식적 돌봄 또는 자발적인 돌봄 문화가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김유진, 2016a). 그러나 연구자가 방문했던 성덕면의 A, B, C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의 경우에는 서로 먹을 것을 챙겨주거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신해 현관으로 나가 우편물을 받아주는 등 소소한 노인들 간의 자발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살펴본 김제시의 '한울타리 행복의 집'의 사례가 읍·면·리 단위에서 같은 마을의 사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차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2) 공동의 의무, 책임

식생활은 노년기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독거 생활을 하는 노인들은 신체적 이유뿐 아니라 혼자서 식사를 한다는 외로움과 번거로움 때문에 식사다운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유은주 외2, 2013). 이에 반해,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은 함께하는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었으며, 정서적인 안정감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공동체 생활이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휴농기인 겨울철에는 많은 수의 노인들이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 눈치껏 알아서 생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입주 노인들은 여성이었는데 이는 농촌 지역 남성 노인들의 수가 적다는 특성에 기인한 현상으로 생각되지만,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는 여성 노인들의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남성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에서 멀어졌을 가능성 또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공동체 생활을 위해 개인적인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서는 상대적으로 연세가 어리신 70대 초반의 어르신이나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보통 식사나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은 일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공유된 신념

(1) 교감성

노인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문제 중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것이 노인 우울에 관한 것이다(손용진, 2010; 어유경·김순은, 2016).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농촌 노인들이 겪게 되는 고독사, 우울증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정책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혼자 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불안감은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혼자 있다 죽으면 자녀들이나 이웃들이 모를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시니어 코하우징을 통해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대화 상대가 없이 혼자 살 때에는 외롭고 쓸쓸했지만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면서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다고 말한다. 시니어 코하우징이 노인들의 우울을 완화시킨다는 결과를 선행 연구들을 통해 파악할 수는 없으나 외로움과 고독감의 해소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소소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나 가족이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시니어 코하우징은 입주 노인들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개인의 의지, 노력

A, B, C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입주한 노인들은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A마을의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제외한 두 곳에서는 화투치기, 윷놀이 등의 활동을 함께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으며, 세 곳 모두 항상 이야기꺼리가 있었고 별 일이 아닌데도 웃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의 일상이 단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여럿이 함께 생활하고 활동하는 정서적 교류를 통해 입주 노인들은 재밌는 일상을 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사회 자본의 가치와 영향

사회 자본은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들의 행동의 원천으로 시니어 코하우징과 같은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사회 자본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Frisk, 2007; Poley, 2007; Markle, 2013; Jolanki & Vilkko, 2015; 이재열, 2006; 하민철, 2011). 시니어 코하우징 입주 노인들 사이에서 형성된 사회 자본이 노년기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①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② 코하우징 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을 하는 노인들은 함께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가족과 유사한 관계로 인식하고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시니어 코하우징 입주 노인들

이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대화가 매우 중요한 상호작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주 노인들은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고 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니어 코하우징을 통해 형성된 노인들의 사회 자본이 노인들 간에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면서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니어 코하우징을 통해 형성된 사회 자본은 노인들이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에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상호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규범의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빨래를 자주 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페트병 물베개를 사용하고 있었고, C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서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모두가 똑같이 돈을 걷어서 음식을 시켜먹고 있었다. 그러나 C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은 한 사람이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다들 믿으니깐 별 다른 갈등 없이 다들 의견에 동의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러한 문화는 한편으로 구성원들에게 강한 결속력을 요구함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뿐만 아니라 입주 노인들 가운데 소수의 건강한 노인들이 대부분 식사나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만을 터놓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건강한 자신이 맡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생각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역할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만 이 또한 공동체 문화를 수긍해야 함을 요구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자본의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즉, 시니어 코하우징을 통해 형성된 노인들의 사회 자본이 서로 간의 배려를 바탕으로 상호 갈등이 없는 코하우징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농촌지역의 특성 상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 간에는 오랜 유대 관계에 의한 초기의 사회 자본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코하우징과 지속적인 공동활동의 참여를 통해 이전보다 더욱 친밀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은 신체적인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독사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혼자서 생활하는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고 계셨다. 이들은 함께 하는 생활의 가장 큰 장점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아플 때 아픈 것을 알아줄 수 있는 상대방이 곁에 있다는 점을 꼽았다. 즉,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상호작용을 통해 외로움, 고독감 등을 해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 있었다.

이러한 정서적인 안정감은 노인들이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긍정적인 유대 관계를 지속하고자하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낮 시간에는 입주 노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밤 시간에는 거주하는 노인들이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공간의 사용을 통해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에 있는 구성원들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고, 공동의 커뮤니티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어울리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긍정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고 있었다.

또한 '한울타리 행복의 집'의 경우 공동체 내에서 밥 담당, 청소 담당 등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생활에 책임감을 부여하였으며, 상호 호혜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의 생활 규범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공동체 생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있었으나,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 분담이 신체적으로 양호한 일부 노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한계도 갖고 있었다.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 사이에 형성된 사회 자본은 노인들에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만족 등 사회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서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서 형성된 공동의 규범은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노인들의 코하우징 생활 적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 자본은 그들의 다양한 경험이 촉진제로 작용함으로써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확대된 사회 자본은 노인들의 삶의 질과 노년기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1인 또는 노인 부부로만 이루어진 가구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 기술의 발달로 거동의 불편함을 겪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주거 안정화 정책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살펴보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 문제의 경우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사회의 상황을 반영한 노인주거복지정책의 성과는 지역사회의 특징뿐만 아니라 정책의 수혜자인 노인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공급자는 물론이고,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와 관련한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 자본 이론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사회 자본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축적된다. 그러나 노년층의 경우 다른 세대와 달리 사회적 관계의 폭이 좁아져 새로운 사회 자본을 형성하거나 기존의 사회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기회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책대상자인 노인들이 사회 자본을 원활하게 형성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사회 자본이 형성되고 축적된 주거공동체는 사회 자본이 형성된 조직, 사회와 마찬가지로 구성원의 신뢰와 상호관계가 활발해져 구성원의 개인적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공동체

내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의 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정보소통 및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 공동의 생활에서는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때문에 공동체 생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교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주거복지정책은 노인들의 지역사회 서비스로의 접근과 사회적 참여와 통합의 증진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노인주거복지정책이 장기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차별화된 노인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이렇듯 지역의 특성에 따라 노인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노인주거복지정책의 모델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하나의 시니어 코하우징에 거주하는 입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 연구라는 점에서 분석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주거복지의 일환으로 시니어 코하우징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례연구가 가장 적합하였으며, 향후에 시니어 코하우징을 공급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과 사례를 포함하여 사례 간 비교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일반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원을 통한 결정적 사례추출방식을 통해 연구 대상자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시니어 코하우징을 하고 있는 사례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향후 본 연구에서 확인한 사회 자본의 형성과정과 노인의 노년기의 삶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양적 연구를 실시한다면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곽현근. (2008).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미치는 동네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1(4): 59-86.

김순은·최지민. (2016). 「한국행정과 사회자본: 지방정부 노인 정책에의 시사점」. 서울: 조명문화사.

김유진. (2016a). '지역 공동체 내에서 나이 들어가기'관점에서 살펴 본 농촌 독거노인 공동생활거주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1(1): 251-273.

_____. (2016b). 농촌지역 독거노인 공동생활거주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노년학」, 36(1): 21-38.

김윤정. (2003). 노인이 제공받는 사회적지지의 효과성 분석. 「노인복지연구」, 21: 123-140.

김제시청. (2017). (http://www.gimje.go.kr/index.gimje). (검색일: 2017. 05. 10)

박경숙. (2001). 농촌과 도시 재가 생활보호노인의 욕구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비교: 경기도

재가 생활보호노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16(1): 175-211.
박미선. (2001). 새로운 주거형태 코하우징(cohousing). 「주택포럼」, 2001(1): 118-127.
박중신·박헌춘·김승근. (2014). 농촌지역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16(4): 1-8.
박희봉. (2009). 「사회자본: 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 서울: 조명문화사.
_____. (2002). 조직 내 사회자본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6(1): 221-237.
석재은·장은진. (2016). 여성독거노인과 남성독거노인의 관계자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71(2): 321-349.
소진광. (2004).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 89-118.
손용진. (2010). 사회자본이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GRI 연구논총」. 12(3): 311-339.
신경림·조명옥·양진향. (2004).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어유경·김순은. (2016). 지역 사회자본의 노인문제 대응 :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지방행정연구」, 30(3): 275-306.
어유경·김인태·홍석호·김순은. (2017). 사회자본과 건강한 노후: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을 활용한 사회자본의 영향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6(1): 121-150.
오창섭·정원길. (2009). 노인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노화정도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19(2): 1-26.
유병선. (2006). 「고령사회의 노인주거 복지과제: 노인공동생활주택으로 해결하자」. 파주: 한국학술정보.
유은주·김미영·이건정. (2013). 농촌 공동생활가정 거주 노인의 공동생활체 경험 연구.「노인복지연구」, 62: 151-172.
이미숙. (2010). 도시거주 노인의 만성질환과 우울증세의 상관성 및 사회관계망의 효과에 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27: 5-30.
이세규. (2013). 에이징 인 플레이스와 도시재생. 서울: 좋은땅.
이재열. (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학」, 8(1): 33-67.
이재향·조벽호. (2012). 고령사회에 대응한 도시형 코하우징 내 세대 교류 활성화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7(3): 29-39.
이진숙. (2015). 대안적 가족으로서의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에 대한 질적 연구. 「아세아연구」, 58(3): 42-71.
_____. (2010). 가족대안으로서의 농촌 독거노인 생활공동체에 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2(1): 95-119.
이창우. (2015). 농촌 노인가구의 일반주택과 공동생활주택 주거만족도 비교 연구. 「농촌계획」, 21(1): 9-17.
이희태. (2012).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전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3): 47-6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일상생활에서의 사회적 자본과 미디어 이용. 충북: 정보통신정책연

구원.
정영미. (2005).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인의 기분상태, 일상생활활동 및 노화에 대한 태도. 「성인간호학회지」, 17(4): 656-667.
정우석·조한. (2007).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도시형 노인용 코하우징의 단위평면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7(1): 173-176.
정인수·박선희·윤혜림. (2012). 농촌지역 독거노인 생활공동체 거주만족도. 「농촌건축」, 14(1): 9-20.
조문정. (2014).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한 공동 공간의 역할: 집합주택의 공동 공간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조원석·김흥기. (2011). 농어촌 독거노인의 공동주거 선호 경향에 관한 연구-농어촌 독거노인을 위한 친환경 공동주거의 모형개발 연구 (I)-.「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3(4), 107-114.
주상현·최낙관·김근식. (2006). 지방정부 노인복지욕구 실태와 정책과제. 「지방정부연구」. 10(4): 195-220.
하민철. (2011). 도시공동체 운동과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33(2): 297-317.
Adler, P. S., & Kwon, S. W. (2000). Social capital: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89-115.
Bookman, A. (2008). Innovative models of aging in place: Transforming our communities for aging population. Community, Work & Family. 11(4): 419-438.
Creswell, John W. 조흥식 역. (2015).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Frisk, S. (2007). From Bowling Alone to Dining Together: a Sustainability Analysis of Cohousing in the United States. Graduate thesis. Lund: Lund University, Master of Environmental Studies and Sustainability Science.
Glass, A. P. (2013). Lessons learned from a new elder cohousing community.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27(4): 348-368.
Greenfield, E. A., Scharlach, A., Lehning, A. J., & Davitt, J. K. (2012). A conceptual framework for examing the promise of the NORC program and Village models to promote aging in place. Journal of Aging studies. 26(3): 273-284.
Jolanki, O., & Vilkko, A. (2015). The Meaning of a “Sense of Community” in a Finnish Senior Co-Housing Community.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29(1-2): 111-125.
Labit, A. (2015). Self-managed co-housing in the context of an ageing population in Europe. Urban Research & Practice. 8(1): 32-45.
Leana, C. R., & Van Buren, H. J. (1999).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and employment practic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3): 538-555.
Leyden, K. M. (2003). Social capital and the built environment: the importance of walkable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9), 1546-1551.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rkle, E. A. (2013). Social support, social capi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in cohousing communities: A mixed-method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Northeastern University Boston.

Poley, L. D. (2007). Community and the habits of democratic citizenship: An investigation into civic engagement, social capital and democratic capacity-building in US cohousing neighborhoods.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Stolle, D., & Rochon, T. R. (1998). Are all associations alike? Member diversity, associational type, and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1): 47-65.

Stake, R.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Thomas, W., & Blanchard, J. (2009). Moving beyond place: Aging in community. Generations. 33(2): 12-17.

Williams, J. (2005). Designing neighbourhoods for social interaction: The case of cohousing. Journal of Urban Design. 10(2): 195-227.

양은진(梁銀珍):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 학사, 서울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관심분야는 지방자치제도, 도시행정, 중앙-지방간의 관계, 고령사회 등이다(olbbenol@gmail.com).

김순은(金順殷):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정치행정학 박사('91년 Kent State University, Factors Affecting Implementation Effectiveness: A Study of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Implementation).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한국지방정부학회 고문. 한국행정학회 연구부회장 역임. 캠브리지대학교('95), 런던정경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98), 와세다대학교('00) 객원교수 역임. 일본 게이오대학교 특별교수('11) (역), 게이오대학교 초빙교수('16년, 역), 교토 리츠메이칸 특별연구교수(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겸무연구원(현). 주요관심분야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도시행정, 중앙-지방 간 관계이다(sekim0313@snu.ac.kr).

〈논문접수일: 2017. 7. 9 / 심사개시일: 2017. 7. 17 / 심사완료일: 2017. 8. 3〉

Abstract

A Study on the Social Capital Formation Process of Elderly Residents in Senior Co-Housing: A Case study of Senior Co-housing in Rural Area

Yang, Eun Jin

Kim, Soon 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social capital formation in elderly seniors living in senior co-housing in view of institution-centered approach. The analysis was mainly focused on the experience of living in senior co-housing, the process of social capital formation for the elderly residents, and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xperience of living in the senior co-housing has a lot of meaning about 'relation'. The early social relations among the elderly residents and the communication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and the formed social capital was influenced positive effect by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nd the life of the senior co-housing. In this way, we found that the social capital of the elderly can be gradually expanded by acting as a facilitator with their diverse experiences, and that the expanded social capital affects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nd the life of the elderly. All findings take together, we suggeste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housing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Key Words: Senior Co-housing, Social capital, Aged Society, Elderly, Housing welfare